

# 졸업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

주민선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before graduation

Min-Sun Chu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졸업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대한 수준 및 관계를 확인하여 교육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서울, 제주 및 대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20일 사이 자료수집 하였고, 서술통계 및 t-test,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80점이고, 연령, 성별,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은 3.64점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3.49점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간호학과 적성 정도, 재학 중 평균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과정 자신감은 3.70점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간호사로서의 실무 수행에 요구되는 간호과정 자신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향상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data for establishing teaching strategies by confirming the lev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before gradu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10 fourth-year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Seoul, Jeju, and Daegu between May 18 and June 20, 2020,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t-test,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communication score was 3.80 poi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ender,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 problem-solving score was 3.64 poi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variation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health status. Self-directed learning score was 3.49 poi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ptitude for nursing,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nursing process confidence score was 3.70 points 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cess confidence were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se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nursing process confidence required for practical performance as a nurse, so strategies for their continuous management and improvement are essential.

**Keyword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Nursing Process Confidence, Nursing Student

본 논문은 2020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원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Sun Chu(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email: secretchu@snjc.ac.kr

Received January 17, 2022

Revised February 14, 2022

Accepted April 1, 2022

Published April 30,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은 사회적, 기술적, 의료적 변화로 인하여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1].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과 우수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하며, 학습과정에 책임을 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2]. 간호사는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실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전문직이기에[1], 현장에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와 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 개개인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으로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3].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4].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은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호업무 수행을 높일 수 있다[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관리하는 능력이므로[6], 간호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동기 및 자율성을 높여서 수행자신감을 고취시키므로[8], 간호대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9].

한편, 간호과정은 간호사의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간호학적 지식을 토대로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과정이다[10]. 간호과정은 간호를 수행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화, 상호관계, 특정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만 달성되며 [3],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은 간호사의 실무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11]. 이에 직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사가 역동적인 상황에서 전문직으로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소

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요구되므로, 간호대학생이 졸업 전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졸업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졸업 전 간호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능력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대한 수준 및 관계를 확인하여 교육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파악하고, 간호과정 자신감과 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을 확인하고,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파악하고, 간호과정 자신감과 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6을 통해 산출하였다. 통계방법은 Correlation test로,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 $1-\beta$ ) .85, Correlation  $\rho$

H1 .3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표집 수는 96명이었다[13]. 이에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10부가 수합되었고, 총 110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최소표집수를 충족하였다. 졸업 전 간호대학생 4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을 위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 의사소통능력에서 제시된 하위요소 중 정보수집(7문항), 경청(7문항), 타인관점 이해(7문항)를 확인하였으며, 정보수집 중 부정문항 2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이었다.

### 2.3.2 문제해결능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을 위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 문제해결능력에서 제시된 하위요소 중 분석(5문항), 실행과 모험감수(5문항), 평가(5문항)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2.3.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을 위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 중 학습요구진단(10문항), 학습목표설정(5문항), 학습전략의 선택(5문항), 자기성찰(5문항)을 확인하였으며, 학습욕구진단 중 부정문항 2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2.3.4 간호과정 자신감

본 연구에서는 Kweon(2014)[14]이 개발한 간호과정 자신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지식, 간호과정 적용, 간호과정 기록, 증상구분, 징후구분, 관련요인 구분, 간호과정 단계 연계, 협력, 간호 일관성 등 9개 영역,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과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8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서울 소재 1개 대학교, 제주도 소재 1개 대학교, 대구 소재 1개 대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 모집 시 COVID-19으로 인한 방역 강화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연구대상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각 대학 내 간호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자유토론방에 게시하였고, 참여를 희망하는 4학년 간호대학생들을 확인 후 이메일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합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소요시간 등을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연구대상자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인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와 Scheffe test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간호과정 자신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 전에 서울 소재 일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IRB No:

SWCN-202004-HR-001).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및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4.03세였으며, 여성이 90.0%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6.4%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15.5%, 천주교 9.1%, 불교 9.1%의 순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52.3%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8.5%,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2%로 나타났다. 간호학도가 적성에 맞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9.1%,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2.7%,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2%순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평균 성적에 대하여 '중'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54.5%로 가장 많았고, '상위 30% 이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7.3%, '하위 30% 이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8.2%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9.1%, '보통이다'가 36.4%, '나쁘다'가 4.5%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Characteristic		The number of person	%
Age(y)	(M±SD)	24.03±5.57	
Gender	Female	99	90.0
	Male	11	10.0
Religion	Christianity	17	15.5
	Catholic	10	9.1
	Buddhism	10	9.1
	None	73	66.4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ory	57	52.3
	Middle	42	38.5
	Unsatisfactory	10	9.2
The aptitude for nursing	Satisfactory	54	49.1
	Middle	47	42.7
	Unsatisfactory	9	8.2
Academic achievement	High	30	27.3
	Medium	60	54.5
	Low	20	18.2
Health condition	Good	65	59.1
	Medium	40	36.4
	Bad	5	4.5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8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에서 「정보수집」이 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청」이 3.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영역에서 살펴보면, 「정보수집」

Table 2.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Data collection		Listening		Understanding other people's perspectives.		Communication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	r(p)	4.01±0.48	-1.81 (.061)	3.60±0.46	-1.40 (.151)	3.78±0.53	-1.68 (.083)	3.80±0.40	-2.27 (.020)
Gender	Female	4.05±0.45	2.89 (.005)	3.62±0.45	1.72 (.088)	3.83±0.51	3.11 (.002)	3.84±0.37	3.27 (.001)
	Male	3.62±0.54		3.38±0.51		3.32±0.54		3.44±0.46	
Religion	Christianity	4.24±0.41		3.69±0.36		3.88±0.55		3.96±0.36	
	Catholic	4.20±0.39	2.81 (.043)	3.67±0.29	0.48 (.697)	3.94±0.30	1.31 (.274)	3.94±0.21	1.79 (.154)
	Buddhism	4.02±0.59		3.49±0.43		3.97±0.67		3.85±0.48	
	None	3.92±0.47		3.59±0.50		3.71±0.53		3.74±0.4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ory	4.16±0.39	7.55 (.001)	3.70±0.41	4.38 (.015)	3.90±0.51	3.10 (.049)	3.92±0.34	6.30 (.003)
	Middle	3.88±0.53		3.44±0.49		3.66±0.55		3.67±0.44	
	Unsatisfactory	3.69±0.39	a) b, c	3.66±0.38		3.60±0.48		3.65±0.33	a) b, c
The aptitude for nursing	Satisfactory	4.15±0.39	4.86 (.010)	3.67±0.47	2.20 (.116)	3.88±0.51	1.98 (.144)	3.90±0.36	3.79 (.026)
	Middle	3.87±0.52		3.49±0.44		3.68±0.54		3.68±0.42	
	Unsatisfactory	3.87±0.55		3.70±0.44		3.71±0.60		3.77±0.44	
Academic achievement	High	4.04±0.49	1.59 (.209)	3.62±0.39	0.06 (.939)	3.67±0.61	0.87 (.420)	3.78±0.43	0.32 (.725)
	Medium	4.05±0.48		3.60±0.42		3.82±0.50		3.83±0.39	
	Low	3.84±0.42		3.57±0.65		3.82±0.50		3.75±0.41	
Health condition	Good	4.00±0.48	0.13 (.877)	3.58±0.47	1.06 (.351)	3.80±0.51	0.03 (.966)	3.80±0.39	0.26 (.768)
	Medium	4.00±0.48		3.60±0.41		3.76±0.53		3.79±0.39	
	Bad	4.11±0.59		3.89±0.58		3.77±0.88		3.92±0.64	

은 성별( $t=2.89, p=.005$ ), 종교( $F=2.81, p=.043$ ).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7.55, p=.001$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4.86, p=.01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4.05점으로 남성 3.62점 보다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종교, 간호학과 적성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4.16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청」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4.38, p=.01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인관점 이해」에 대해서는 성별( $t=3.11, p=.002$ ),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3.10, p=.049$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3.83점으로 남성 3.32점보다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소통능력은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 $r=-0.23, p=.02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t=3.27, p=.001$ ),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6.30, p=.003$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3.79, p=.026$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3.84점으로 남성 3.44점보다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3.92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과 적성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3.6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에서 「평가」가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행과 모험감수」가 3.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영역에서 살펴보면, 「분석」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3.30, p=.041$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3.42, p=.036$ ), 건강상태( $F=3.46, p=.03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간호학과 적성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상태는 '나쁘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4.28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행과 모험감수」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3.51, p=.034$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3.25, p=.04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Table 3. Differences of Problem solv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Analysis		Execution and adventure.		Evaluation		Problem solving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	r(p)	3.66±0.57	-.059 (.542)	3.33±0.68	.013 (.895)	3.77±0.54	-1.10 (.257)	3.64±0.44	-.119 (.217)
Gender	Female	3.67±0.55	0.50	3.34±0.68	0.57	3.80±0.54	1.57	3.66±0.43	1.43
	Male	3.58±0.73	(.698)	3.22±0.73	(.572)	3.53±0.51	(.118)	3.46±0.51	(.154)
Religion	Christianity	3.74±0.65		3.45±0.79		3.87±0.62		3.74±0.51	
	Catholic	3.74±0.72	0.89 (.447)	3.20±0.78	0.29 (.832)	4.02±0.55	2.28 (.083)	3.73±0.44	1.16 (.329)
	Buddhism	3.40±0.48		3.34±0.45		3.44±0.48		3.45±0.33	
	None	3.67±0.53		3.32±0.68		3.75±0.51		3.63±0.4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ory	3.80±0.52		3.49±0.61		3.86±0.53		3.77±0.38	5.93
	Middle	3.53±0.63	3.30 (.041)	3.13±0.69	3.51 (.034)	3.69±0.53	2.20 (.116)	3.50±0.47	(.004)
	Unsatisfactory	3.50±0.39		3.22±0.88		3.54±0.60		3.45±0.40	a)b,c
The aptitude for nursing	Satisfactory	3.80±0.53		3.49±0.64		3.89±0.50		3.78±0.39	6.59
	Middle	3.54±0.58	3.42 (.036)	3.15±0.67	3.25 (.043)	3.65±0.55	2.66 (.074)	3.49±0.44	(.002)
	Unsatisfactory	3.49±0.52		3.31±0.82		3.69±0.59		3.53±0.45	
Academic achievement	High	3.77±0.63		3.47±0.72		3.85±0.48		3.73±0.46	
	Medium	3.64±0.55	0.937 (.395)	3.30±0.66	1.01 (.368)	3.74±0.57	0.45 (.641)	3.62±0.41	1.07 (.345)
	Low	3.56±0.52		3.20±0.70		3.74±0.51		3.56±0.47	
Health condition	Good	3.66±0.50	3.46 (.035)	3.40±0.71	1.68 (.190)	3.79±0.53	2.84 (.063)	3.67±0.44	3.24 (.043)
	Medium	3.59±0.46		3.18±0.59		3.67±0.53		3.53±0.38	
	Bad	4.28±0.54	c)a,b	3.52±0.90		4.24±0.48		4.00±0.58	c)a,b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5.93, p=.004$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6.59, p=.002$ ), 건강상태( $F=3.24, p=.04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3.77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과 적성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태는 '나쁘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4.00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3.49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에서 「학습목표설정」은 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욕구진단」은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하위 영역에서 살펴보면, 「학습욕구진단」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16.79, p<.001$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20.67, p<.001$ ), 재학 중 평균성

적( $F=8.38,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3.61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과 적성정도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3.64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재학 중 평균성적은 '상'으로 응답한 그룹이 3.62점, '중'으로 응답한 그룹이 3.37점으로 '하'로 응답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목표설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전략의 선택」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14.06, p<.001$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13.53, p<.001$ ), 재학 중 평균성적( $F=6.58,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3.86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과 적성정도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3.87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재학 중 평균성적은 '상'으로 응답한 그룹이 3.85점, '중'으로 응답한 그룹이 3.59점으로 '하'로 응답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성찰」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Table 4. Differences of Self-directed learn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Learning needs diagnosis		Learning goal setting		Choosing a learning strategy		Self-reflection		Self-directed learning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	r(p)	3.38±0.51	-.066 (.495)	3.65±0.72	-.053 (.581)	3.61±0.57	-.104 (.281)	3.43±0.59	.009 (.928)	3.49±0.44	-.072 (.457)
Gender	Female	3.39±0.52	0.79 (.433)	3.68±0.71	1.49 (.139)	3.65±0.55	2.47 (.015)	3.44±0.58	0.59 (.564)	3.51±0.44	1.63 (.107)
	Male	3.26±0.42		3.35±0.75		3.22±0.58		3.33±0.71		3.28±0.44	
Religion	Christianity	3.48±0.64		3.61±0.92		3.71±0.59		3.39±0.53		3.53±0.49	
	Catholic	3.55±0.58	1.12 (.345)	3.86±0.55	0.33 (.802)	3.96±0.59	1.83 (.147)	3.60±0.53	0.35 (.790)	3.70±0.41	1.66 (.180)
	Buddhism	3.49±0.55		3.68±0.62		3.58±0.61		3.36±0.47		3.52±0.44	
	None	3.32±0.46		3.62±0.71		3.54±0.54		3.42±0.63		3.44±0.44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ory	3.61±0.46	16.79 ( $<.001$ )	3.76±0.73		3.86±0.55	14.06 ( $<.001$ )	3.64±0.55	7.80 (.001)	3.70±0.40	16.89 ( $<.001$ )
	Middle	3.12±0.34		3.51±0.69	1.48 (.233)	3.33±0.46		3.21±0.52		3.26±0.35	
	Unsatisfactory	3.29±0.49	a>b,c	3.72±0.57		3.40±0.44	a>b,c	3.26±0.63	a>b,c	3.39±0.34	a>b,c
The aptitude for nursing	Satisfactory	3.64±0.46	20.67 ( $<.001$ )	3.74±0.76		3.87±0.54	13.53 ( $<.001$ )	3.55±0.62		3.70±0.40	15.74 ( $<.001$ )
	Middle	3.08±0.40		3.52±0.62	2.08 (.129)	3.35±0.48		3.26±0.55	3.56 (.032)	3.26±0.38	
	Unsatisfactory	3.37±0.47	a>b,c	3.47±0.84		3.42±0.48	a>b,c	3.58±0.45		3.44±0.42	a>b,c
Academic achievement	High	3.62±0.42	8.38 ( $<.001$ )	3.80±0.82		3.85±0.49	6.58 (.002)	3.55±0.63	3.18 (.046)	3.69±0.37	7.51 (.001)
	Medium	3.37±0.47		3.60±0.66	0.94 (.393)	3.59±0.56		3.46±0.54		3.48±0.41	
	Low	3.06±0.57	a,b>c	3.56±0.73		3.29±0.54	a,b>c	3.14±0.63	a,b>c	3.22±0.50	a,b>c
Health condition	Good	3.35±0.51		3.60±0.70		3.64±0.53		3.41±0.60		3.47±0.42	
	Medium	3.43±0.52	0.27 (.761)	3.65±0.72	2.14 (.123)	3.53±0.62	1.11 (.334)	3.38±0.57	2.59 (.080)	3.48±0.47	0.99 (.374)
	Bad	3.32±0.38		4.28±0.66		3.88±0.66		4.00±0.47		3.76±0.45	

( $F=14.06, p<.001$ ), 재학 중 평균성적( $F=6.58,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3.64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재학 중 평균성적은 '상'으로 응답한 그룹이 3.55점으로, '중'으로 응답한 그룹이 3.46점으로 '하'로 응답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F=16.89, p<.001$ ), 간호학과 적성 정도( $F=15.74, p<.001$ ), 재학 중 평균성적( $F=7.51,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3.70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과 적성정도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3.70점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재학 중 평균성적은 '상'으로 응답한 그룹이 3.69점, '중'으로 응답한 그룹이 3.48점으로 '하'로 응답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 3.5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은 3.7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에서 「주관적 증상」이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과정 단계」가 3.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과정 자신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0.46, p<.001$ ). 간호과정 자신감의 하위 영역 「설명」( $r=0.47, p<.001$ ), 「적용」( $r=0.41, p<.001$ ), 「기록」( $r=0.28, p=.004$ ), 「주관적 증상」( $r=0.46, p<.001$ ), 「객관적 자료」( $r=0.36, p<.001$ ), 「관련 요인」( $r=0.36, p<.001$ ), 「간호과정 단계」( $r=0.33, p=.001$ ), 「협력적 건강관련 자료 연계」( $r=0.35, p<.001$ ), 「다양한 간호 관련 자료와 연계」( $r=0.29, p=0.003$ )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간호과정 자신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0.56, p<.001$ ). 간호과정 자신감의 하위 영역 「설명」( $r=0.46, p<.001$ ), 「적용」( $r=0.44, p<.001$ ), 「기록」( $r=0.47, p<.001$ ), 「주관적 증상」( $r=0.40, p<.001$ ), 「객관적 자료」( $r=0.53, p<.001$ ), 「관련 요인」( $r=0.53, p<.001$ ), 「간호과정 단계」( $r=0.49, p<.001$ ), 「협력적 건강관련 자료 연계」( $r=0.47, p<.001$ ), 「다양한 간호 관련 자료와 연계」( $r=0.43, p<.001$ )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Participants (N=110)

Categorie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M±SD	r(p)	r(p)	r(p)
Nursing process confidence	3.70±0.54	0.46(<.001)	0.56(<.001)	0.59(<.001)
Knowledge	3.77±0.65	0.47(<.001)	0.46*(<.001)	0.51(<.001)
Performance	3.62±0.67	0.41(<.001)	0.44(<.001)	0.49(<.001)
Record	3.77±0.61	0.28(.004)	0.47(<.001)	0.48(<.001)
Discriminating among symptom	3.96±0.68	0.46(<.001)	0.40(<.001)	0.49(<.001)
Discriminating among sign	3.57±0.70	0.36(<.001)	0.53(<.001)	0.46(<.001)
Discriminating among related factors	3.57±0.70	0.36(<.001)	0.53(<.001)	0.46(<.001)
Linkages of phases	3.45±0.73	0.33(.001)	0.49(<.001)	0.44(<.001)
Collaborative consistency	3.60±0.64	0.35(<.001)	0.47(<.001)	0.46(<.001)
Nursing consistency	3.65±0.66	0.29(.003)	0.43(<.001)	0.44(<.001)

Table 6. Factors to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Participants (N=110)

	B	SE	$\beta$	t	P	VIF
(Constant)	.36	.42		0.92	.359	
Communication	.11	.13	.06	0.89	.373	1.654
Problem solving	.37	.12	.30	3.02	.003	1.769
Self-directed learning	.43	.13	.34	3.36	.001	1.877
R2=.417 Anj.R2=.400 F=24.30 p<.00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간호과정 자신감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0.59, p<.001$ ). 간호과정 자신감의 하위영역 「설명」( $r=0.51, p<.001$ ), 「적용」( $r=0.49, p<.001$ ), 「기록」( $r=0.48, p<.001$ ), 「주관적 증상」( $r=0.49, p<.001$ ), 「객관적 자료」( $r=0.46, p<.001$ ), 「관련 요인」( $r=0.46, p<.001$ ), 「간호과정 단계」( $r=0.44, p<.001$ ), 「협력적 건강관련 자료 연계」( $r=0.46, p<.001$ ), 「다양한 간호 관련 자료와 연계」( $r=0.44, p<.001$ )에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3.6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1.654~1.877으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잔차 독립성인 Durbin-Watson 지수는 1.823으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문제해결능력( $\beta=.37, p=.003$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beta=.43, p=.00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40%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4.30, p<.001$ ).

##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대한 수준 및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80점으로 중간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3.54점으로 나타난 결과[1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의 결과를 문항 수로 환산한 점수 3.90점에 비하면 다소 낮았다[16].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가 환자와 환자의 가족, 의료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17], 간호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전략을 갖추기 위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3]. 그러므로 졸업 전 간호대학생은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재

학동안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팀토론 수업[16], 응용협동학습[15]을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능력이 팀토론 수업[16] 적용 후에는 향상되었으나, 응용협동학습[15] 적용 후에는 변화가 없었고, 응용협동학습의 운영기간과 협동학습을 하는 시간이 짧아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15]. 즉, 전통적인 강의방식의 교수방법 보다 다양한 교육 방법의 시도가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교과과정 내에서의 시도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학과 적성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부터 졸업 전까지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적응하고 만족감을 갖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과정 내에서의 교육방법 개선 뿐 만 아니라, 타인과의 다양한 교류를 경험하도록 교과과정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마련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같은 전공학과 학생들간의 협력 훈련은 의사소통능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다소 제한적이므로[15] 미래에 협력해야 하는 보건의료전공 학생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3.64점으로 나타났고,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3.4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10]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과 적성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은 전공 만족도가 높거나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5,10].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지 않고 전공에 대한 적성정도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문제해결능력이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5] 문제해결능력은 졸업 전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이에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며, 추후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본 연구대상자는 5점 만점에서 3.49점으로 나타났고, 3, 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3.33점[5], 2학년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3.45점[12]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고[18], 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흥미를 이유로 선택한 그룹'이 '성적 등 기타 이유로 선택한 그룹'에 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으며[19],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 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12].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만족하고, 간호학과 적성정도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재학 중 평균성적이 '상', '중'으로 응답한 그룹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나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관리하는 능력이므로[6] 평균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의 만족정도 및 학과 적성정도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18,19]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성정도 및 대학생활 만족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겠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모두에서 대학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생애에 걸쳐서 향상하도록 해야 하는 능력이므로[2] 현행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팀기반 학습 등의 단편적인 교육방법의 다양화보다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대학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간호대학생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성인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이므로[2] 의료보건 계열 학과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간호과정 자신감은 3.70점으로 나타났고,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에서 2.85점을 나타낸 결과[10]보다는 높았고, 간호과정 교과목을 수강한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3.68점으로 나타난 결과[12]와는 유사하였다. 간호과정은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에[5] 단순히 교육을 제공해서는 간호과정 수행에 대한 변화가 오

지 않는다[20]. 이에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정 자신감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문제해결능력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10]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과정 자신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1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간호과정 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서[8]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과정 자신감이 요구되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고 학습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21]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5] 간호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호과정을 수행하게 되므로[3] 의사소통능력이 간호과정 자신감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에 졸업 전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실무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과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의 강화 또는 교육방법의 다양화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만족도를 높이며, 성인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겠다.

## 5. 결론 및 제언

졸업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파악하고, 간호과정 자신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서울, 제주 및 대구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졸업 전 간호대학생은 중간수준 이상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나타내었고, 간호과정 자신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간호과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나타났다.

졸업 전 간호대학생 중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한 그룹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간호사로서의 실무 수행에 요구되는 간호과정 자신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향상되는 능력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향상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대학입학부터 졸업 시 까지 대학 재학 동안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교과과정 내에서 단기간의 훈련이 아닌 대학 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또는 다른 보건의료계 학과 학생들과의 적극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 및 교육정책 변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계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F. Shirazi, F. Sharif, Z. Molazem, M. Alborzi, "Dynamics of self-directed learning in M. Sc. nursing student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 professionalism*, Vol.5, No.1, pp.33-41, 2017.
- [2] S. J. Lee, Y. K. Jang, H. A. Lee, G. E.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03.
- [3] N. Kirca, K. Bademli,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care behaviors of nurse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55, No.4, pp.624-631, 2019.  
DOI: <https://doi.org/10.1111/ppc.12381>
- [4] J. Y. Ha, S. Y. Jeon,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2, No.3, pp.264-273,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264>
- [5] H. S. Park, J. Y. Han,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438-448, 2013.  
DOI: <https://doi.org/10.7739/ikafn.2013.20.4.438>
- [6] W. S. Lee, K. C. Cho, S. H. Yang, Y. S. Roh, G. Y. Le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combined with simulation on the basic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6, No.1, pp.64-72, 2009.
- [7] E. Ü. Avdal,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of student nurses on success in Turkey", *Nurse education today*, Vol.33, No.8, pp.838-841,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02.006>
- [8] Y. A. Kim,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introductory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9, pp.459-471, 2016.
- [9] H. Y. Jung, S. Kang,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6, pp.241-250,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6.241>
- [10] S. H. Yang, I. O. Sim,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5, pp.612-622,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5.612>
- [11] K. Y. Kim, E. Lee,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7, No.2, pp.451-461, 2016.  
DOI: <https://doi.org/10.7465/jkdi.2016.27.2.451>
- [12] C. S. Park, Y. J. Ko,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68-75,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0.68>
- [13]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14] H. S. Kweon, *Development and effects of nursing process simulation scenario*,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4
- [15] M. G. Kim, H. W. Kim, "The Effects of Jigsaw Cooperation Lear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4, pp.598-516,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508>
- [16] H. S. Jun, H. J. Ju, "The effect of term based learning

-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0, pp.269-279,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269>
- [17] B. A. Mullan, E. J. Kothe, "Evaluating a nursing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cours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ated ability, satisfaction, and actual performa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0, No.6, pp.374-378, 2010.  
DOI: <https://doi.org/10.1016/i.nepr.2010.05.007>
- [18] S. O. Kim, M. S. Shim,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2, No.3, pp.424-437, 2018.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8.32.3.424>
- [19] M. Y. Jho, M. O. Chae,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513-522,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13>
- [20] J. M. Kim, Y. S. Choi, "Effect of practice education using the simulator,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4, pp.263-270,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4.263>
- [21] Kwon, M. S.,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387-394,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87>

주 민 선(Min-Sun Chu)

[정회원]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질적연구